

전남대 비정규교수 인문학술모임 '무등지성'

'사람다움' 회복과 소통지향 '대안적 모델'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아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는 답을 한다. 물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기준 역시 다양하다.

그럼에도 대다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우선 가치로 둔다. 저마다 주관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이하다.

작인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했다. 장복동 대표는 "지역사회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자처하지만 그 토대는 미약하다"며 "무등지성이 그 역할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내 다양한 분야의 박자들이 주축이 돼, 인문학 학술모임이 결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철학, 심리학, 영문학 등 연구자들의 전공도 다양하다. 박해웅 교수(철학), 장복동 교수(철학), 심옥숙 교수(독문학), 정의석 교수(심리학), 명혜영 교수(일문학), 이현주 교수(영문학), 이송희 교수(국문학) 등은 초창기부터 모임을 이끌어오고 있는 멤버다.

서로 공감하고 발전을 견인하는 촉매제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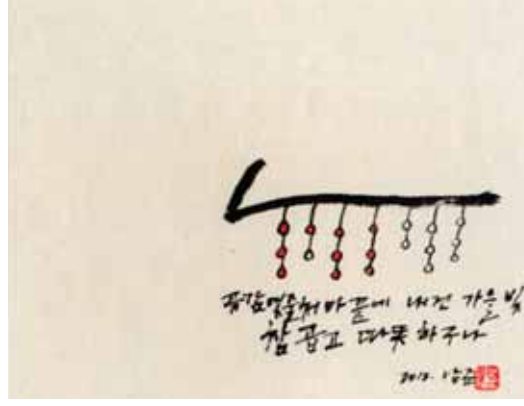
"우리 강좌를 듣기 위해 서울에서 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불을 밝히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밝아지지 않을까 기대된다."

장복동 대표는 무등지성이 낮은 곳으로 가,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무등지성은 지난 3월부터 총장서림과 함께 '찾아가는 인문학'강좌를 매월 넷째주 토요일 광주총장서림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이현주 교수(영문학)의 '파이데이아 고전 다시 읽기-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무등지성 3기' 강좌가 4월 8일까지 광주 신안동 SJ빌딩(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등지성은 청소년 강좌도 열고 있다. 장성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성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방학기간 제외) 매주 토요일에 청소년 인문학강좌를 실시한다. 화순 지오학교(구 빛고을대안학교)에서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글쓰기 강좌를 실시한다. mudeung0903@hanmail.net 문의 062-511-0903.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박남준 작 '꽃감'



임의진 작 '조선대와 제'

버들치와 어깨춤의 봄기운 팍팍

박남준·임의진 2인전, 31일까지 메이홀

지난 8월 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한창인 도심에 문을 연 신기하고 영롱한 예술공간 '메이홀'(mayhall.co.kr)에서는 흥미로운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

31일까지 계속되는 '버들치와 어깨춤의 봄기운 팍팍전'은 지리산 약양산방에 살고 있는 '버들치 시인' 박남준과 시쓰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는 목사 '어깨춤' 임의진의 2인전이다.

박 시인은 최근 펴낸 산문집에 삽화로 실었던 작품들을 내놓았고, 임목사는 남미의 전자 체 게바라를 소재로 다양한 그림들을 그렸다.

영광 범성포 출신으로 공지영의 산문집 '지리산 행복학교'에 '버들치 시인'으로 소개됐던 박 시인은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창비) 등의 시집과 '박남준의 산방일기', '스님, 메리크리스마스'(한겨레) 등의 산문집을 냈다.

메이홀 관장을 맡고 있는 임목사는 '참꽃 피는 마을'(이레) 등의 산문집과 '여행자의 노래' '멜랑콜리 맨' 등 월드뮤직 선곡 음반과 자작곡 음반을 내기도 했다. 문의 010-6791-80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위풍당당 나무로봇 김동인 개인전, 31일까지 갤러리D

김동인씨가 오는 31일까지 갤러리D에서 '2013 나무로봇'을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김씨는 무의식적 발상과 상상력을 큐브릭 형상의 나무로봇에 풀어냈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기존의 작품들과 함께 한층 더 커진 크기에 로봇의 기계적인 요소를 부각시킨 신작을 보여준다.

변형이나 합체와 같은 기능을 강화한 'MS1'은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작가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기계에 비유했다. 특유의 사격포즈를 취하고 있는 'MS2'에서는 작가의 조형적 세심함을 엿 볼 수 있다.

로봇이라는 첨단기술과 나무라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더해진 그의 작업은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상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작가와는 또 다른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조선대 미술과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조각,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문의 062-222-8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MS 1'



전남대 비정규교수 인문학술 모임인 '무등지성' 회원들. 왼쪽부터 이송희·심옥숙·명혜영·이현주 교수·신우진 간사, 박해웅·장복동 교수 <무등지성 제공>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세계비엔날레協 초대 회장에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용우(사진) 대표이사가 세계비엔날레협회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세계비엔날레협회(International Biennial Association)는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이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했다. 임기는 3년이다.

또 이스타불비엔날레 비제 외레트 감독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비엔날레재단 마리케 반할 대표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세계비엔날레협회는 앞으로 세계 각 비엔날레의 유대와 관련사업에 대한 연구, 유관기관·단체·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사업을 공동연구한다.



비엔날레 관련 정책 조사 및 연구활동, 경영과 운영에 관한 연구자문, 학술 및 출판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 대표이사는 옥스퍼드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 교수, 뉴욕매체에 슬렌더 관장, 2004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현대미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 선정

권승찬·이조흠·설정환 등 6명

미디어 아티스트 권승찬, 박상화, 진시영, 정은화, 이조흠씨와 스토리텔링 전문가 설정환 씨 등 6명이 광주문화재단의 2013년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선정 작가들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 입주 공간

에서 개인 창작뿐 아니라 광주문화재단이 기획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트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특화 및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

입주 작가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레지던스 공간에 머물면서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전시를 시작으로 주변 건물 간판을 미디어아트로 꾸미는 '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작고 빛나는 미디어 간판II'를 제작하고 연말 보고전을 통해 창작 결과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94. /이보람기자 bora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 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지하 1,2층 할인매장
1,2,3층 이태리 가구
4,5층 모던,혼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1899-0240

홍스페이스

TV 거실장 무료증정 행사 홈페이지 참조

동구청엽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400평